

2019년 도 제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9년 2월 14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 지 원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 사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윤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김 현 기 공보관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의안 제4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협의를 거쳐 보고서의 구성체계와 서술방식을 일부 변경하

였음. 우선 제Ⅰ장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에서 최근 물가동향을 해외요인, 국내 요인, 기타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등 물가에 대한 설명을 보강하였음. 또한 제Ⅱ장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련 지표가 동향부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절히 표기하였음. 아울러 제Ⅲ장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의 ‘주요 고려사항’은 향후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최근 변화 위주로 간명하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 ‘주요 고려사항’으로 다루었던 통화정책 관련 이슈 분석은 참고박스 형태로 수록하였음.

이어서 지난 2월 1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일부 위원은 소비자물가의 기초적인 흐름이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도록 최근 국제유가 급등락 등 이례적인 물가변동 요인을 명확히 기술하는 한편, 국고채금리 하락 배경에 대해 해외요인과 국내요인을 함께 서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들은 제Ⅱ장 ‘통화신용정책 운영’에서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은 향후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긴 했지만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임이 보다 잘 드러나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금년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외에도 일부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의 충실화 및 내용 간의 연계성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소제목의 표현을 수정하고 설명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어서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지난해 11월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설명 부분에 ‘향후 대

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은 통화정책 결정 배경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시의 기준금리 인상이 향후 실물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성을 감안한 결정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생략)